

경기 화성시 '로이농장' “기본 지키는 것이 고급육 성적 비결”

에스에스네트웍스 'AI 번식관리 시스템' 통해 1년 1산 실현
아침·저녁 일정한 시간 사료 급여...무슨 일 있어도 꼭 지켜
거세우 연간 10여두 출하...평균 경락가 1천100만원 이상



▲ 이연표 대표.

“규모보다 내실, 작은 농가일수록 기본이 곧 경쟁력입니다.”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서 번식우 37두, 육성우 15두 등 총 52두의 한우를 일관사육하고 있는 이연표 로이농장 대표는 '작지만 강한 농장'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한우농가다. 연간 출하 두수는 많지 않지만, 철저한 개량과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로 최고급육 성적을 안정적으로 만들

어내며 고소득을 창출해 강소농의 경쟁력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특히 이연표 대표는 한우사육을 시작한 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내에서 사양관리와 개량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는 선도적인 한우농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표가 한우산업과 인연을 맺고, 한우사육을



▲ 이 대표가 정성스레 사육하고 있는 육성우.



▲ (왼쪽부터)이 대표, 에스에스네트웍스 이승준 이사, 이상욱 대표가 '한우키움' 앱을 통해 발정 징후 알림을 확인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다. 암송아지 5두를 입식하면서 제2의 인생을 한우와 함께 연 이 대표는 이전까지 35년간 사진관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시력이 점차 떨어졌고, 사진관을 지속 운영하기에 한계를 느껴 딸에게 물려준 후 노후를 준비하며 선택한 것이 바로 한우사육이었던 것.

사실 이 대표에게 한우는 낯선 분야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소로 한우를 사육했고, 친형과 매형 역시 한우농가다. 이 대표 역시 사진관을 운영하던 시절에도 4~5마리를 부업으로 키워왔던 만큼, 한우와의 인연은 오래됐다.

이 대표는 “그동안 주먹구구식이었어도 한우를 사육해왔고, 가족들도 전업농가로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어 소가 매우 친숙했다”면서 “무엇보다 한우는 몸만 건강하면 정년 없이 계속 사육할 수 있으며, 노력한 만큼 소득으로 돌아오는 점도 한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전업으로 한우사육에 뛰어들자 사료비 등 생산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이 대표는 “소규모농가일수록 비용 부담이 더 크

게 체감될 수밖에 없다”며 “규모에 따른 소득은 당연히 대농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고소득을 내려면 결국 내실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보여 지는 것보다 내실이 중요

이처럼 이 대표는 소규모농가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농장의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했다. 특히 번식 성적 안정화에 최선을 다했다는 이 대표는 그중에서도 번식농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1년 1산'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그는 “번식농가에게 송아지 생산은 밭에 작물을 심는 것과 같은 1년 농사의 시작”이라며 “1년 1산이 무너지면 농장 전체 수익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번식우의 발정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기에 수정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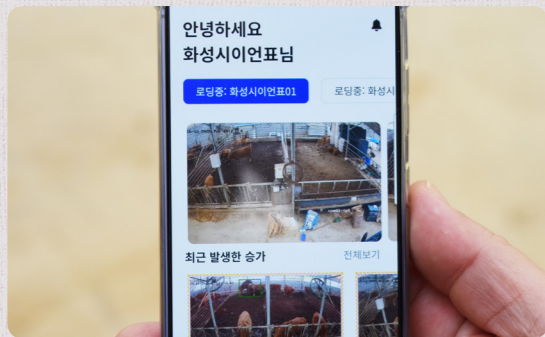
이어 “이를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농가 입장에서 하루 24시간 축사에

만 매달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안 행사나 지인들의 경조사 등 외부 활동이 불가피한 상황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또한 G한우연구회 총무를 맡고 있어 각종 회의와 외부 활동이 잦은 편이다. 이로 인해 낮 시간대 발정을 놓치거나, 밤사이 발정이 찾아올 경우 정확한 수정 적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캡슐형이나 목걸이형 발정탐지기 도입도 생각해봤으나, 캡슐형 장비는 암소를 도태할 경우 함께 폐기해야 하는 1회성 장비라는 점에서 부담이 컸다”면서 “목걸이형 장비 역시 모든 번식우에 상시 장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 분만 이후 수정 대상이 바뀔 때마다 탈부착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적인 노동력 부담도 문제”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알림 통해 발정 시각 확인



▲ '한우키움' 앱 메인 화면 모습.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에스에스네트웍스에서 개발한 'AI를 활용한 한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번식관리 시스템'(이하 번식관리 시스템)이라는 이 대표는 2023년 지자체 지원사업

을 통해 농장에 CCTV를 설치하던 과정에서 우연한 계기로 이 번식관리 시스템을 접하게 됐고, 이후 번식 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했다.

‘번식관리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과 축산 정보통신 장비를 접목해 한우의 번식 상태를 영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농장주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이 번식관리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농장 내 설치된 CCTV가 암소의 승가 행동이나 꼬리 들기와 같은 발정 징후나 분만 상태를 감지하면, 인공지능 번식관리 프로그램인 ‘한우키움’이 이를 즉시 분석해 농장주에게 알림을 보내준다”며 “농가 입장에서는 이 알림을 통해 수정 적기에 인공수정을 실시하거나 분만 시기에 맞춰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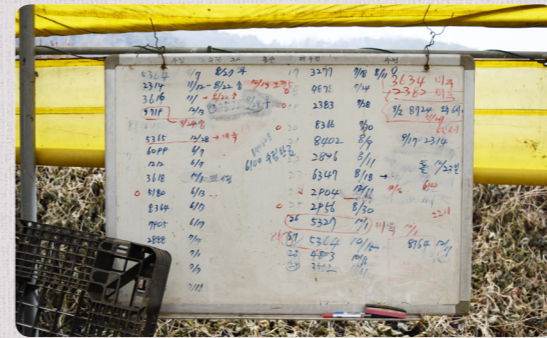
그는 특히 “대부분의 한우농가들은 저녁 사료를 급여한 뒤 아무리 늦어도 18~19시면 축사를 나서 집으로 들어간다”면서 “이후 CCTV를 통해 한두 차례 소의 상태를 살펴볼 수는 있지만, 잠에 들고 나면 다음 날 아침 사료를 급여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소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CCTV를 설치하지 않은 농가가 더욱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간대에 발정이 찾아오면 농가 입장에서는 정확한 수정 적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번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부터는 발정이 감지되면 즉시 스마트폰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대와 상관없이 적기에 수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로 인해 수태율이 크게 향상됐고, 번식 성적이 안정되면서 송아지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농가 소득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

다”며 “소규모농가일수록 이러한 번식 관리의 차이가 농가 경영 성패를 좌우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모 작을수록 개량 매진해야”



▲ 이 대표는 번식우의 특이사항을 즉시 기록하기 위해 농장 한쪽에 화이트보드를 설치해놨다.

연간 10여 두의 거세우를 출하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 가운데 7~8두가 1++등급을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고급육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평균 도체중 역시 500kg을 상회하며, 평균 경락가격은 두당 1천100만원을 웃돈다. 최근 출하한 거세우 한 마리는 1++등급, 근내지방도 9, 도체중 584kg을 기록하며 1천400여만원의 경락가격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이처럼 뛰어난 성적을 바탕으로 강소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주저 없이 ‘암소개량’을 꼽았다.

그는 “규모가 작을수록 개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며 “과거에는 개량 수준이 충분하지 않았고, 정액 역시 특정 형질에 치우쳐 있어 출하성적의 편차가 컸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액의 유전능력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됐고, 사육 중인 암소의 능력 또한 함께 향상돼 2~3년 전

부터 고급육 성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사양관리도 중요하다는 이 대표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바로 ‘사료 급여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며 “아침 5시 30분, 저녁 4시 30분으로 급여 시간을 정한 이후 한우를 사육해온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켜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람도 결혼을 하거나 군대에 입대해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면 오히려 살이 찐다고 하지 않느냐”며 “소 역시 정해진 시간에 사료를 급여·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증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소가 배고파서 울 정도가 되면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스트레스는 증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한우사육 경험상 사료를 일정한 시간에 급여해야 소의 컨디션과 반추위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사실 특별한 비결은 없다”며 “특히 암소개량에 집중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사료를 급여하며 음수조와 사료조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등 기본을 꾸준히 지켜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우사육은 특별한 비법보다 기본을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하느냐의 싸움”이라며 “작은 농가일수록 욕심을 줄이고 개량과 급여 시간 같은 기본에 충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성적을 낼 수 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내실 있는 사육을 통해 안정적인 농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병욱**

【현병욱】